코로나 의료진에 간식 오리온, 621곳 전달

오리온그룹이 코로나 선별진료소 의료진에게 7000만원 상당의 특별 간식 박스를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오리온이 준비한 간식 박스엔 '포카칩', '오징어땅콩', '꼬북칩' 등 오리온의 인기 스낵이 들어 있다. 지원품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산하의 전국 621곳 선별진료소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오리온은 올해 2월과 3월 대구·경북 및 수도권 주요 지역에 '오리온 제주용암수', 간편대용식 '마켓오 네이처 오!그래놀라', 마스크 등 총 2억5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올해 1월에는 오리온 중국 법인을 통해 초코파이(하오리요우파이 好麗友派)와 큐티파이(큐티파이 Q帝派) 2000박스를 후베이성 우한 지역에 긴급구호물품으로 기증했다. 4월에는 베트남 현지 의료진과 군인들에게 초코파이와 '오리온 제주용암수'를 전달했다.

김보라 기자
bora11@meconomynews.com

최태원 '불황 베팅'… 세계 최고 반도체 도약 '정조준'

10조 규모 인텔 낸드사업 인수 '코로나 안개' 속 국내 최대 빅딜 낸드 단숨에 세계2위 '딥체인지'

"하이닉스가 행복해질 때까지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직접 뛰겠다. 하이닉스는 SK그룹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지난 2012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하이닉스반도체(現 SK하이닉스) 인수 직후 이천공장을 방문해 언급한 내용이다. 반도체를 통한 글로벌 성공스토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8년이 지난 현재 최 회장은 다시 한번 과감한 베팅에 나서며 이 같은 의지를 재확인했다. 코로나19로 대내외 환경에 짙은 안개가 낀 상황에서도 최태원 회장의 '인수합병 DNA'는 다시 가동됐다.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을 국내 최대 규모인 10조원에 인수하며 글로벌 반도체사로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평소 "어려운 환경을 위기라고 단정짓지 말고 딥체인지 계기로 삼자"고 강조한 부분을 몸소 실철한 것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1일 인텔과 사업 양도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인수 대상은 인텔의 낸드 SSD, 낸드 단품과 웨이퍼 비즈니스, 중국 다롄팹 등이며, 인수 총액은 90억 달러(약 10조3104억원)이다. 인수 대상에 인텔 옵테인(Intel® OptaneTM)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사업 인수로 사업구조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물론 글로벌 시장 점유율 2위로 단숨에 뛰어오르게 됐다.

그동안 SK하이닉스는 D램에 비해 낸드 사업 비중이 약했다. SK하이닉스 전체 사업에서 D램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지난 2분기 기준으로 73%였고 낸드는 24% 수준을 보였다. 대부분의 매출과 수익을 D램에 의존하고 있는 사업 구조 개편을 위해서 낸드 사업 확대는 불가피했다. 시장 점유율도 기존의 5위(11.4%)에서 키옥시아(17.3%)를 제치고 삼성전자에 이어 2위 자리로 도약하게 됩니다.

여기에 고부가 시장으로 평가되는 SSD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SSD 시장에서 인텔은 시장 점유율 2위인 강자로 지난 2분기 기준 29.6%를 보이고 있는데, 향후 인수가 마무리되면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은 36.7%에 달해 시장 1위인 삼성전자를 넘어서게 된다.

이번 인텔 낸드 사업 인수가 글로벌 반도체사 성장을 위한 묘수로 작용하는 셈이다. 재계에서는 코로나19 환경에 더해 반도체 업황이 부진한 상황에서 경쟁사를 인수한 것은 최 회장의 용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 규모가 10조원을 육박하는 만큼 최 회장의 뚝심과 투자 철학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반도체는 그룹 내 사업 가운데서도 최 회장이 직접 챙길 정도로 애정이 깊다.

최 회장은 지난 2012년 침체의 늪에 빠진 하이닉스를 구출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으로 이끈 주인공으로 평가된다.

당시 반도체 시장의 미래 전망이 불안정한 상태라 잘못했다가는 인수 주체인 SK텔레콤까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상당수의 고위급 인사들도 하이닉스 인수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하이닉스의 가능성을 확신한 최 회장은 인수를 밀어붙였다. 인수 작업이 진행 중이던 2011년 12월 하이닉스 이천 공장 방문을 시작으로 충북 청주와 중국 우시의 생산 현장을 직접 챙기며 애착을 보여왔다.

하이닉스를 SK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최 회장은 경영전략부터 손봤다. 과감한 투자는 물론 인수합병(M&A)에 적극적인 행보를 시작한 것이다.

우선 기술부문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뤄졌다. SK하이닉스의 연구개발 투자액은 인수 이듬해에 1조144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초로 연구개발비 1조원을 넘겼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반도체 산업의 불황으로 대부분의 업체가 투자를 축소하는 상황이었지만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 시장경제신문DB

SK하이닉스는 반대로 투자를 늘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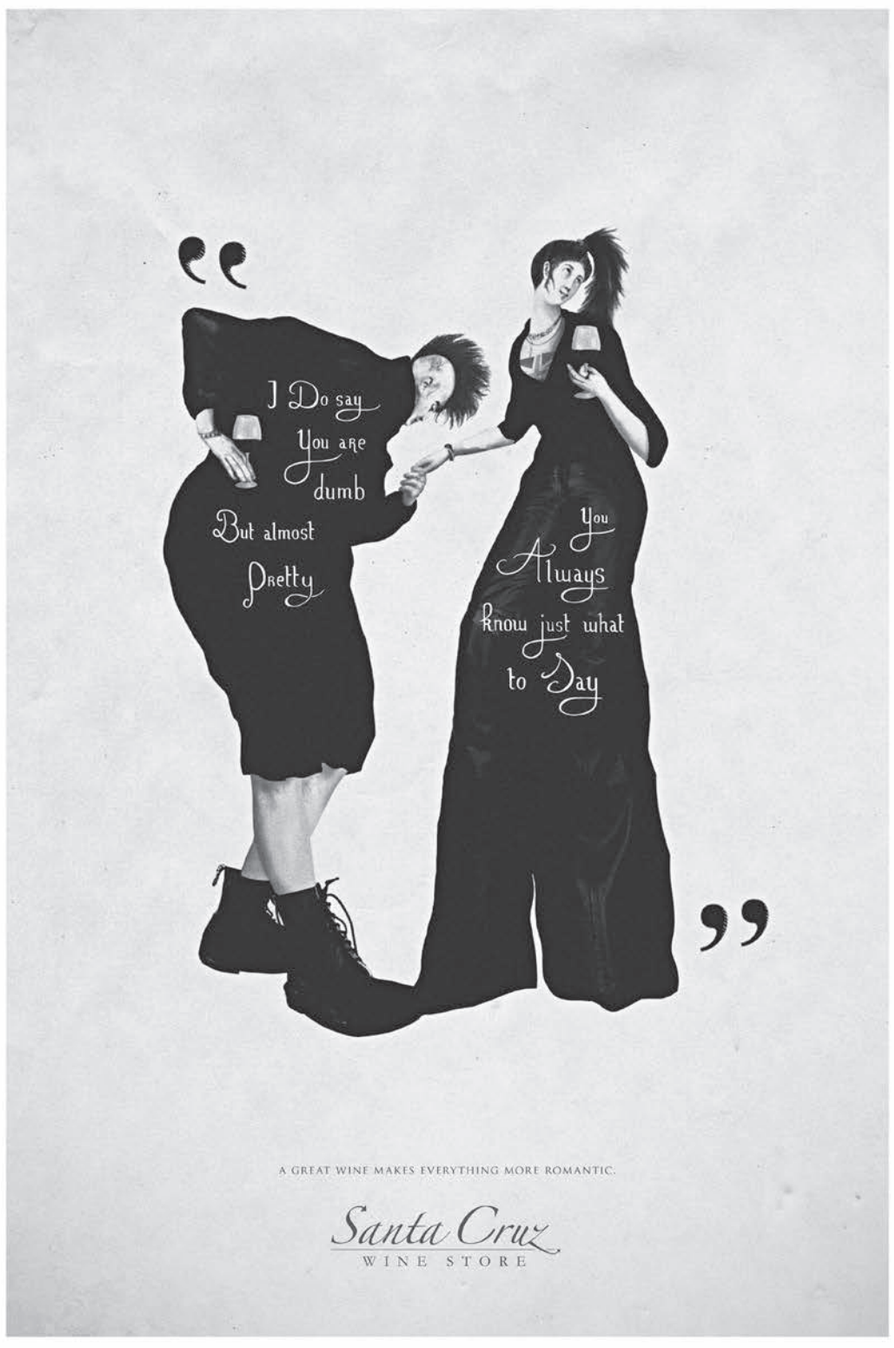
2012년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3조8500억원을 투자했는데 이는 2011년(3조5000억원) 대비 10%를 확대한 것이다.

이를 통해 경쟁력이 떨어졌던 청주공장에 새로운 낸드플래시 생산 라인인 M12를 준공하게 됐다.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원가경쟁력,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미세공정 전환을 순조롭게 이어갈 수 있었다.

이런 노력은 성과로 이어졌다. SK하이닉스는 그룹 편입 이후 4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2016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2013년, 2014년, 2015년, 2017년, 2018년 모두 사상 최대의 매출과 영업이익 기록을 경신하며 크게 성장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서도 과감한 승부수를 내렸다. 이 사업은 SK하이닉스가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해 50여개 장비·소재·부품 협력사와 함께 입주하는 반도체 전문 산업단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반도체 초격차를 위한 최 회장의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재범 기자 jbcho@newdailybiz.co.kr

Cannes Lions 수상작 지면 전시



2014년 Press Lions Silver Lion Campaign

Title: DUMB 바보
Client: SANTA CRUZ WINE STORE 산타크루즈 와인 샵
Agency: PUBLICIS SAO PAULO 퍼블리시스 상파울로
Product: SANTA CRUZ WINE STORE 산타크루즈 와인 샵

Copy: 좋은와인은 무엇이든 조금더 로맨틱하게 만든다.

반도체 최대 M&A장 열려

SK하이닉스, 인텔 낸드 인수 빅4 딜 규모만 731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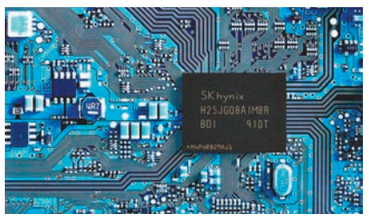
SK하이닉스가 미국 인텔의 낸드플래시 사업 인수를 추진하며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네번째로 큰 인수·합병(M&A)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5년 만에 반도체업계에 최대 장이 서는 해가 될 전망인 가운데 SK하이닉스가 10조 원이 넘는 대규모 딜을 추진하며 '남의 잔치'로 끝날뻔 했던 반도체 시장 대변혁에 이름을 올렸다는 평가다. 2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플래시 사업 전체를 인수하게 되며 올해 추진되는 반도체업계 M&A 딜 빅4에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아직 관계 당국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올해 추진된 반도체업계 M&A 중에서는 손에 꼽히는 수준의 큰 규모로 기록될 전망이다.

SK하이닉스가 추진하는 이번 딜의 규모는 100억 달러(10조 3104억 원)다. 낸드 SSD사업을 중심으로 인텔이 중국 다롄에 운영 중인 3D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이 포함되고 옵테인 사업만 제외된다.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사업 인수는 올해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반도체업계 M&A 바람에 동참하는 동시에 한국 반도체 M&A 역사 상 한 획을 긋는 빅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특히 올해는 지난 2015년 이후 잠잠했던 글로벌 반도체 M&A판이 다시 커진 시점이라 더 주목도가 높다. 반도체 업계와 M&A업계에서는 올해가 5년 만에 최대 장이 열린 해가 될 것이라는 관측을 쏟아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IC인사이츠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올 한해동안(9월 말 기준) 631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M&A 딜이 추진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사업을 인수하는 딜까지 합쳐지면 현재까지 반도체 시장에서만 731억 달러 규모의 M&A가 추진되고 있는 셈이다. SK하이닉스가 추진하는 이번 딜의 규모만 해도 한국 반도체 역사에선 최고 수준이지만 올해 추진되는 다른 반도체업체들의 합종연횡 규모는 남다른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우선 지난 7월 발표된 미국 반도체 장비업체 아날로그 디바이시스(ADI)의 맥심 인티그레이티드 프로덕츠 인수 결정으로 반도체 M&A시장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ADI는 경쟁사였던 맥심을 200억 달러(약 22조 8000억 원)에 인수키로 하며 현재도 관련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SK하이닉스 96단 4D 낸드 기반 고성능 1Tb QLC. 사진=SK하이닉스

올해 최대 M&A는 무려 400억 달러(약 47조 5000억 원) 규모의 딜이다. 미국의 그래픽처리장치(GPU) 1위 엔비디아가 영국의 반도체 설계기업인 ARM 인수를 추진한다. 앞서 ARM은 소프트뱅크가 인수해 주목받았던 곳이기도 하다. 엔비디아 외에도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눈독을 들였던 매물이었고 딜 규모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아직도 이들에게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올해 두번째 빅딜은 PC와 게임 콘솔용 반도체 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미국 AMD가 추진한다. 경쟁사인 자일링스 인수를 위해 300억 달러(약 34조 6000억 원)를 베팅할 예정이다. 이 딜은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사업 인수 추진에 바로 앞선 지난 8일(현지시간) 알려지며 앞선 ADI의 딜을 넘어서 올해 두번째로 큰 M&A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장소희 기자 soy08@newdailybiz.co.kr

3년간 중소아파트 더 폭등… 서민은 '허망'

서울 중소 아파트 3.7억→6.2억 40.0㎡ 미만 소형도 9천만원 급등 전용 59㎡형 중형이 20억 넘기도

최근 3년간 서울에서 가장 가격 상승이 높았던 아파트는 40~62.8㎡미만의 중소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과 사회초년생들이 노리는 이들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21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감정원의 2017.5~2020.7월간 서울아파트 평형별 평균 매매시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 40~62.8㎡의 중소형 아파트 시세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3억 7218만원에서 올해 7월 6억 1741만원으로 65.9%(2억4523만원) 상승했다. 다음으로 많이 오른 평형대는 62.8㎡이상~95.9㎡미만으로 같은 기간 5억1524만원에서 8억3197만원으로 61.5%(1억6730만원) 올랐다.

19평대 미만으로 분류되는 전용면적 40.0㎡ 미만 소형 아파트 시세는 2억6117만원에서 3억5009만원으로 34%(8892만원) 올랐다. 가격이 저렴한 저가 소형아파트는 노원구, 구로구 등 외곽지역에 많았는데 이마저도 집값이 대폭 올라 서민이나 사회초년생들의 내집 마련이 어렵게 됐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노원구의 경우 같은기간 동안 중소형 아파트 시세가 2억7110만원에서 4억1435만원으로 52.8%(1억4325만원)상승한 반면, 소형은 1억8759만원에서 2억8815만원으로 53.6%(1억56만원) 올랐다. 중소형보다 소형이 더 오른 것이다. 구로구도 중소형 49.9%에 비해, 소형은 51.0%로 더 많이 상승했다.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구, 서초구 등은 중소형 이상의 중형대 오름폭이 가장 컸다.

소형 및 중소형대 시세 최상위권 아파트 가격 증가폭은 더욱 컸다. 강남구 현대힐스테이트 2단지 내 소형 38.671㎡의 경우 3년전 7억7500만원에서 지난 7월 현재 4억1000만원이 오른 11억8500만원으로 거래되고 있다.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59.89㎡ 매물도 8억15500만원이 급등해 21억1500만원으로 20억원대에 올라섰다. 김 의원은 "3년여간 서울에서 보통의 시민이 사고, 살집이 사라졌다"며 "정부의 부동산 실정이 갭투자와 패닉바잉을 자극하면서 서민의 주거비용을 급증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경표 기자 yukp@meconomynews.com